

이번 대통령 선거, 왜 더욱 중요한가¹⁾

사공일 |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세계 속의 한국경제 길잡이-

IGE www.igenet.com

자료문의 | 세계경제연구원(IGE)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02-551-3334~7 팩스 02-551-3339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 새 대통령 선거일이 9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매일의 생계를 꾸려나가기야 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별한 의미를 차분히 생각해볼 겨를조차 없었을 것으로 본다. 게다가 정치권은 종합적으로 정리된 정강정책 마련보다 인기영합적인 슬로건으로 정치홍행에만 급급하여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 하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은 항상 중요하다. 그러나 앞으로 5년간 다루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 사적 관점에서 특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성장과 복지의 균형 있는 경제·사회체제 구축으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소득분배의 악화와 양극화는 한마디로 세계화의 가속화와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의 심화에 수반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체제적 문제이고 구조적 문

1) 이 글은 2012년 9월 17일자 중앙일보 "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s)"에 실린 글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제로서 장단기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등 당장 필요한 대책과 함께 좀 더 중장기적 안목의 일자리 친화적 성장(job-friendly growth) 정책과 교육개혁 등 원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친화적 성장정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보건, 의료, 컨벤션 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과감한 규제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개혁은 그 자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국정과제임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 지금 세계는 지식사회의 심화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는 와중에 있다. 자연자원과 자본보다 사람과 지식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은 새로운 지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혁신(innovation)과 생산성(productivity)으로 연결시키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우선 산업화 시대적 패러다임(paradigm) 하에서 그 기초가 마련된 기존 교육제도와 교육방법의 근본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탄력적인 평생교육과 훈련·재훈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교육제도 개혁의 중요한 일환이 되어야 한다. 기술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어떤 일자리(job)에 있는 지속적인 배움(learning)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개혁은 지식사회의 국가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필자는 과거 대통령 선거 시에도 주장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교육개혁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둘 “교육대통령”²⁾을 선출해야 한다.

남북통일 준비는 또 하나의 주요국정과제이다. 앞으로 5년은 한반도 통일의 구체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봐야 한다. 어떤 시나리오에 의한 통일이든 통일의 기회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 기회를 일실하지 않을 대통령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의 통일은 독일의 경우에서처럼 남북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없이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따라서 평소 성숙된 외교를 통해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 등 주요 우방국 및 주변국들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통일된 한국이 이 지역과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통일된 강한 독일을 두려워했던 이웃의 지도자

2) 중앙일보 “새 교육체제 구축 시급하다”, 2007.3.26, 중앙일보 “이젠 교육대통령이다”, 2002.1.28 참조

들을 직접, 그리고 미국과 구소련을 통한 간접 외교로 설득해냈던 구서독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
의 리더십은 다음 대통령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다음 국가지도자가 남북통일의 구체적 기틀을 다지는
“통일대통령”이 되기 위해 “외교대통령”이 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 국제사회 전반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호의(good will)를 꾸준히 쌓아야 한다. 특
히 많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와 경제개발에 관한 지식 공유 노력 강화 등 이
들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등 범지구촌
적 문제해결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아직도 개도국 지
위 유지를 고집하는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외교는 하루 속히 끝을 내야 한다. 지난 2010년 서
울 G20 정상회의 이래 많은 개도국과 선진국들이 한국의 적극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는
고무적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계속 하락하고 있는 우리경제 성장잠재력(growth potential)을 제고하는 것도 시급하다. 현재 3
퍼센트대로 떨어져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적어도 5퍼센트대로 올리기 위한 모든 노
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해낼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과감한 규
제개혁과 제도개선으로 유·무형 생산요소 투자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미흡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 노력으로 우리경제 체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시급하
다. 물론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은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현재 약화되어 있는 정부 부처 간 정
책조정 기능의 강화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조직 개편 청사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IMF 등 국제기구의 계량적 기준에 의한 분류상 “선진국”에 속해 있다. 그러나 아직
도 우리는 일인당소득뿐 아니라 국민생활의 질적 측면에서 오늘날의 일류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사회제도의 선진화와 함께 성장잠재력의 극대화도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경제성장
세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부터라도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이렇게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다루어나갈 구체적 방안
과 로드맵(road map)을 내놓고 전문가들의 검증과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국민 모두
는 대한민국이 통일된 일류선진국으로 거듭나게 할 국가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역사적 의의를 깊이 인
식하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한다. 후손들로부터 통일된 일류선진국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국가지도자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국민 모두의 몫이다.

IGE 행사안내

국내의 전문가들과 정책담당자들을 초청하여 “통일과 한국경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국제회의에는 통독 당시 독일 재무차관이었던 Manfred Carstens와 독일의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국내에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우익 통일부 장관 등이 참여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KDI,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그리고 독일의 콘라드아데나워재단(KAS)이 공동개최하는 이 회의는 10월 21일(일) 환영만찬에 이어 22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개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IGE/ KEXIM/ KDI/ KAS/ PIIE “통일과 한국경제” 국제컨퍼런스

일 시 2012년 10월 21~22일

장 소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룸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IGE

MEMBERSHIP GUIDE

법인 회원

- 1 구좌당 연 1,000만원 (중소기업 연 500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개인 회원

- 1 구좌당 연 30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제공

학생회원 (대학원 및 대학생)

- 1 구좌당 연 5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이메일 서비스

※ 모든 후원금은 관련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회원가입 문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T 02-551-3334~7

F 02-551-3339

E-mail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